

## 러시아 은행산업의 성장요인과 발전가능성 전망

### 1. 은행산업 개요

#### □ 1998년 외환위기 이전 급속한 양적 성장 기록

- 러시아 은행산업은 1992년 현대적 의미의 은행 체제가 도입된 이후 1998년 외환 위기 발발 이전까지 정치 안정과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600여 개에 달하는 은행이 설립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함.
  - 그러나 대다수 은행은 영세하여 자산과 예금 구조가 불안정했고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는 미약했으며 소유 구조가 불투명해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어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50% 이상이 퇴출되는 시련을 겪었음.

#### □ 2000년대 들어 은행산업의 질적 성장 추진

- 러시아 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대 각종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규정을 채택하며 은행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함.
  - 구조조정법 및 부실은행 퇴출법 제정, 설립 기준 및 감독관리 강화, 은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도입,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는 은행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음.



&lt;표 1&gt; 러시아 은행산업의 SWOT 분석

강점(Opportunitie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li> <li>- 외국인투자 증대, 거버넌스 및 규제 체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은행 난립</li> <li>- 스베르뱅크(시장점유율 23%)의 압도적인 수신 규모 및 지점 네트워크</li> </ul>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성장 가능성</li> <li>- WTO 가입 임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은행 난립에 따른 은행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li> <li>- 국제유가 등락에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li> </ul>

자료: BMI, Russia Commercial Banking Report, Q3 2011.

#### □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정부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재연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정부는 향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산업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2. 은행산업의 외형성장과 구조개혁 추진내용

#### □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산업 안정에 주력

- 러시아 은행산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었으나 정부는 환율 안정을 통해 자본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금융 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실물부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 부문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함.



- 정부 지원자금은 6개 국영은행(준국영은행 포함)<sup>1)</sup>에 약 1조 루블이 집중되었고, 13개 주요 상업은행에 대한 지원은 790억 루블에 그쳤으며, 그 중 스베르뱅크에 5,000억 루블, VTB에 3,800억 루블을 지원함.

□ 총자산, 자기자본 및 여·수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 러시아 은행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2010년 GDP 대비 총자산 및 자기자본 비율은 75.2% 및 10.5%로 전년(75.4% 및 11.8%)에 비해 소폭 하락했음.
  - 은행산업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의 절대 규모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급증함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GDP 규모: 387,864억 루블(2009년) → 449,392억 루블(2010년)
- 러시아 은행의 여·수신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법인대출은 2010년 말 기준 GDP의 34%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선진국의 경우 동 수치가 100%를 초과하고 있어 러시아에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개인대출도 GDP의 9% 미만에 불과함.

<표 2> 러시아 은행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추이

	총자산		자기자본	
	금액(억 루블)	GDP 대비(%)	금액(억 루블)	GDP 대비(%)
2005	96,962	44.8	12,418	5.7
2006	139,635	51.9	16,927	6.3
2007	201,251	61.0	26,715	8.1
2008	280,223	67.3	38,111	9.1
2009	294,300	75.4	46,206	11.8
2010	338,046	75.2	47,323	10.5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Review of the Banking Sector of the Russian Federation, July 2011.

1) 스베르뱅크(Sberbank), VTB, 로젤크호즈뱅크(Rosselkhozbank), 가즈프롬뱅크(Gazprombank), 모스크바은행(Bank of Moscow) 및 트란스크레딧뱅크(Transcreditbank)임.



&lt;표 3&gt; 러시아 은행의 여·수신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총 여신	3,245	5,227	5,920	6,045	6,963	8,782
단기여신	1,271	2,047	2,319	2,368	2,727	3,440
장기여신	1,974	3,179	3,602	3,677	4,236	5,342
총 수신	5,379	8,587	9,128	9,335	10,761	13,577

자료: EIU, Country Finance (Russia), May 2011.

- 개인예금 규모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GDP 대비 비중은 2010년 말 기준 21.8%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의 은행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입증하고 있음.

## □ 국영은행이 주도적 역할 담당

- 2010년 말 기준 5개 국영은행이 시장점유율의 43.5%를 차지하는 등 국영은행이 러시아 은행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표 4> 러시아 10대 은행 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억 루블, %

은행명	소유	총 여신	총자산	시장점유율
Sberbank	국영	49,930	88,880	23.6
VTB	국영	9,500	27,320	7.3
Gazprombank	국영	8,150	18,120	4.8
Rosselkhozbank	국영	5,940	10,700	2.8
Bank of Moscow	국영	4,270	9,230	2.5
VTB 24 <sup>주)</sup>	국영	4,190	9,230	2.5
Alfa-Bank	민간	3,950	8,510	2.3
Unicredit (이탈리아)	외국계	3,440	6,788	1.8
Raffaelsenbank (오스트리아)	외국계	2,623	5,051	1.3
Promsvyazbank	민간	1,820	4,900	1.3

주: VTB의 소매금융 담당기관

자료: EIU, Country Finance (Russia), May 2011.



-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는 2010년 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9년 244억 루블에서 2010년 1,816억 루블로 급증했음.
  - 스베르뱅크는 2011년 3월에 러시아 최고(最古)의 투자은행인 트로이카 다이얼로그(Troika Dialog)를 인수하며 투자은행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또 소매영업 부문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신용카드 부문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자산규모 2위의 VTB도 2008~0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0년 476억 루블 규모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
  - 2008년 이후 자회사인 VTB캐피탈을 통해 투자은행 부문에 진출한 후 민간 투자은행인 르네상스(Renaissance) 캐피탈과 트로이카 다이얼로그를 추월하며 투자은행 부문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함.
  - 또 2011년 4월에 자산규모 5위인 모스크바 은행 지분 인수에 성공하며 소매 금융 담당 자회사인 VTB 24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영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10월에 2011~15년 중 900여 개 국영기업의 정부지분 매각계획을 발표했으며 매각대상 국영기업에는 스베르뱅크, VTB, 로젤크호즈뱅크 등의 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 스베르뱅크의 정부 지분은 현재 60.3%에서 2014년까지 50%로 축소될 예정임.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 스베르뱅크 회장은 2011년 2월 은행 지분의 7.6% 매각을 위해 IPO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으며, 러시아 정부는 향후 4년간 스베르뱅크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임.
  - VTB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2011년 2월 정부 지분 85.5% 중 10%를 매각하며 약 33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충당했음.<sup>2)</sup> 2011년 10%, 2012년에 15%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임.

2) 2010년 말 VTB 정부지분은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인 미국계 펀드 TPG캐피탈(TPG Capital, 과거 Texas Pacific Group, 자산규모 470억 달러)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정부는 2011년 2월 시장매각 방식으로 바꾸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실시했음.



- 농업은행인 로젤크호즈뱅크(자산규모 4위)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부지분 25%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 국영은행 정부지분 매각은 정부의 은행부문 관여를 축소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의 재정적자 감축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조치임.

### 3. 은행산업 전망

#### □ 2011~15년 은행산업의 발전전략을 통해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

- 2011년 1월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2011~15년 은행산업의 발전전략을 발표함.
  - 은행 자산규모를 GDP의 74%에서 90% 수준으로, 은행자본은 현재 GDP의 10.5%에서 14% 수준으로, 은행 총 여신규모는 현재 GDP의 41.3%에서 55%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치를 제시함.
-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주된 내용은 경영투명성 강화,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인프라 확충, 리스크 관리 강화,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통해 장기, 저리, 대규모 여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향후 금융기관 내 정부의 비지배(non-controlling) 지분을 축소하고, 현행 9천만 루블의 은행 최저자본 요건을 2015년까지 3억 루블로 강화하며, 은행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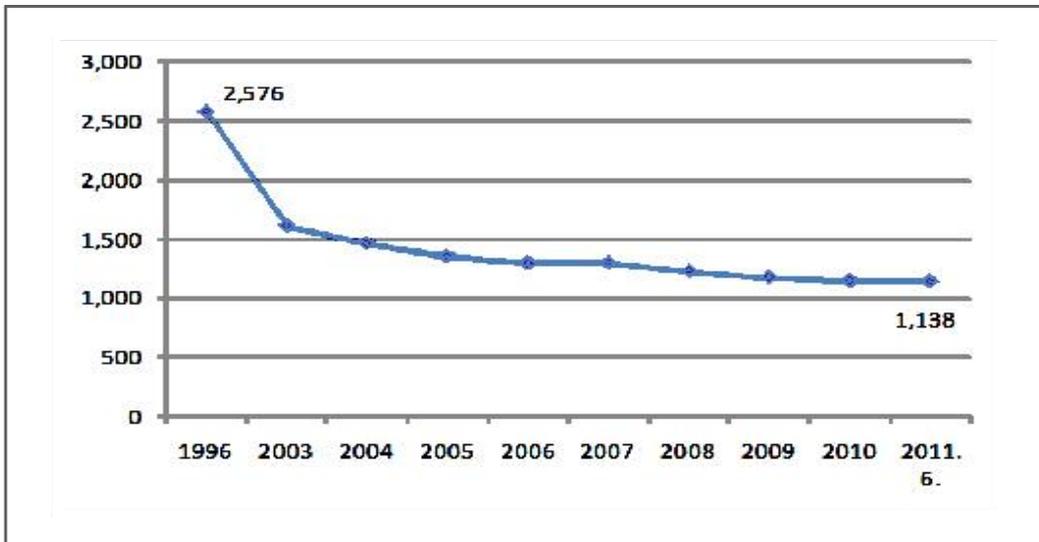
#### □ 중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의 점진적인 발전 예상

- 2009년 이후 은행산업의 유동성은 개선되었고, 특히 2010년에는 여신이 회복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여전히 은행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우려되며 향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영세한 규모의 소형 은행들이 파산했으나 예상보다는 그 수가 크지 않았음. 향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3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최저자본은 2010년 1월 1일부터 9천만 루블(약 300만 달러), 2012년 1월 1일부터는 1억 8천만 루블(약 600만 달러)로 강화됨.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은행산업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으나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신중한 여신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발전은 2008년 이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러시아 은행 수의 변화  
(등록은행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Review of the Banking Sector of the Russian Federation, July 2011.

【허 정 옥】